

민주, 전대 국면... 당권투쟁 조기 접화하나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참여 후보군 막판 장고

광주·전남 지역의원 5명 지도부 진입 관심

민주당이 3월말이나 4월초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혁신과 비전 제시로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오는 4월과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부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이번 임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진입, 위기 국면에 빠져있는 호남 정치권의 활로를 개척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

원을 분리 선출함에 따라 지도부 경선 참여를 모색해왔던 원내의 인사들은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당 대표 경선과 관련, 당내에서는 김한길·추미애·박영선·정세균·신기남 의원 등이 자전타전으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박지원, 이용섭 의원이 당 대표 경선 참여를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김부겸 전 최고위원과 정동영·전정배·이부영·정대철 상임 고문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주류와 비주류의 대표 주자로 나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비주류 대표 주자로는 김한길 의원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류 측 대표 선수는 정세균, 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히고 있다.

관련 포인트는 비주류의 후보단일화와 주류의 당권 도전 여부로 압축되고 있다.

당내 권력 교체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비주류 진영에서는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주류 측에 당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친노·주류 측에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책임을 돌리며 정치



박지원 의원, 이용섭 의원, 이낙연 의원, 강기정 의원, 김동철 의원

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원내 인사보다는 원외의 김부겸 전 최고위원 등을 대표 주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영선, 정세균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나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당권을 주더라도 최고위원 경선에 적극 참여, 비주류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주류와 비주류 대표 주자의 양자 대결로 당권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경우, 일부 당권 주자들은 최고위원 경선 참여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

광주·전남 국고 1800억 증액 이윤석 '벼랑 끝 전술' 통했다

심익 막판 강운태 시장·박준영 지사와 보이콧 선언 등 압박

올 해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1800억 원이나 증액된 배경에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였던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의원의 '벼랑 끝 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석 의원

7일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국회의 예산 심의가 막판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증액 예산 대부분에 기획재정부가 반영 '불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이윤석 의원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내년도 국고 예산보이콧 선언을 하겠다고 기자회견 내용을 기재부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윤석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막판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증액 예산 대부분에 기획재정부

일당을 털어냈다. 이 의원은 이어 "점잖게 예산 활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기재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광주·전남의 열악한 현실은 나를 반쯤 미친 계수조정위원으로 만들었다"며 "이 같은 '무대포' 정신이 없었다면 지역 현안 예산 반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무대포' 정신은 지난 2010년에도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무안 현경~해제 고속도로 건설)을 취소한 것에 반발, 장관실에서 이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여, 결국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는 '악명' (?)이 자자하다.

이 의원은 "지역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만큼 이제는 호남 정치권의 역량 회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지역 민심과의 소통을 통해 호남의 정신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지역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만큼 이제는 호남 정치권의 역량 회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지역 민심과의 소통을 통해 호남의 정신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개헌 논의 '만지작'

박기춘 원내대표 국회 연설, 개헌특위 설치 제안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이 이에 적극적인 뿐 아니라 여권의 한 축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까지 개헌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혀, 개헌 논의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하

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약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

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타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논의가 어려워진다"면서 "설이 우리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동료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구체적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6명

지역발전 공동요구안 인수위 전달

김성곤(여수 갑)·주승용(여수 을)·우윤근(광양)·김선동(순천·곡성)·김승남(고흥·보성)·김광진(비례)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6명이 지역발전 공동요구안을 마련, 대통령 인수위와 정부 등에 전달했다.

7일 김선동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비례) 의원실에서 모임을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채택했다. 공동 요구안은 ▲임진왜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여수 신항 대체항만

(신북항) 조기 건설 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마련 ▲광양만 배후단지 활성화 ▲나로호 성공 발사에 따른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여수~남해 간 한라대교 조기 건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조기 건설 등 6개 안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순천시에 입점을 추진중인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저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승남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속 추진을"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성공함으로써 우주강국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번 성공을 계기로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항공우주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시스템 산업이며 기술 파급 효과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김승남 의원

없이 우주항공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주항공산업 집적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규정이 조속히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만 효율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훈훈한 설명절 되십시오.

계사년에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해도 희망차고 새로운 한해가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용이 있는 대학 · 인용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